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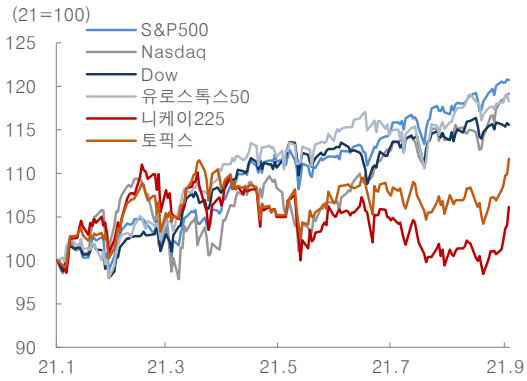
Global Strategy

일본 증시, 스가 총리 사임에 계속 웃을 수 있을까?

Global Strategist 문남중
namjong.moon@daishin.com

- 3일, 스가 총리의 사퇴선언이 가져온 일본내 금융시장 변화는 증시와 통화 강세로 현직 총리 퇴진보다는 새 총리의 경제 대책이 가져올 기대감에 더 환호했다는 점이다. 닛케이225지수는 2.05% 오르며 2개월 반만에 최고치, 토픽스지수는 1.61% 상승하며 3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엔화는 달러 대비 강세(109.71)를 보이며 스가 총리의 사퇴를 기다려왔다는 듯이 금융시장은 민첩하게 움직였다.
- 스가 총리의 사퇴 배경에는 일본내 코로나19 대처에 미흡해 민심이 크게 동요한 점, 비상사태에도 불구하고 도쿄 올림픽을 강행한 점, 내각에 대한 지지도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자민당내에서 총리 교체론이 나오며, 일반적으로 정권 유지가 어려운 정도로 평가되는 20%대의 국정 지지율을 나타내며 총리직 유지를 위한 기반이 흔들렸다.
- 스가 총리의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 선언으로 자민당 총재 선거는 스가 총리의 총재 임기 만료일 전날인 9월 29일 진행되고, 10월 초 새로운 총리 선출을 위한 임시 국회가 소집된다. 10월 21일 중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총선일은 유동적이지만 10월 17일 예정되어 있고, 10월 임시 국회를 통해 의회가 해산될 경우 총선은 11월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 현재 포스트 스가로 거론되는 인물은 1. 기시다 전 자민당 정무조사위원장, 2. 고노 다로 행정개혁담당상, 3. 이시바 전 자민당 간사장 3인이다. 기시다 전 정조회장은 자민당 주류 파벌 중 하나인 기시다파의 수장으로 2020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스가 총리에 이어 2위를 차지했고 당내 경쟁 파벌인 호소다파와 아소파 등과도 나쁘지 않은 관계를 맺고 있다. 고노 담당상은 SNS 등을 통해 국민들과 격 없는 소통을 이어오면서 대중 인기가 높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대중 인지도는 높지만 당내 관계에 있어 기시다 전 정조회장보다 약하는 평가와 2020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3위를 차지한 전력이다.
- 현 금융시장은 스가 총리 사퇴선언 이후 새 총리의 정책에 주목하고 있는 만큼 각 후보별 정책성향을 살펴보면, 기시다 전 정조회장은 부의 재분배를 내세우며 중산층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고노 담당상은 스가 내각에서 행정부문의 다양한 개혁과제를 추진한 만큼 젊은 층을 지지 기반으로 한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과 탈원전을 지지한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기존 집권층에 대한 비판적인 인물이었던 만큼 차별화를 위한 진보적인 정책을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 갑작스러운 스가 총리의 사임 결정을 일본 증시는 상승으로 화답하고 있다. 향후 새 총리 선출을 위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 새 정권의 적극적인 재정 확대 기대감이 모멘텀으로 작용할 경우 연말까지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와 도쿄 올림픽 개최에 따른 경제적 손실 영향 등 불거질 수 밖에 없는 변수로 일시적인 변동성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림 1. 연초이후 선진국 증시 흐름. 일본 부진 지속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2. 스가 총리 사퇴선언 후, 일본 증시 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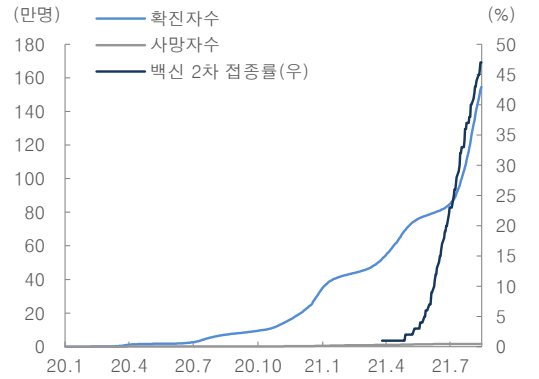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3. 포스트 스가로 거론되는 3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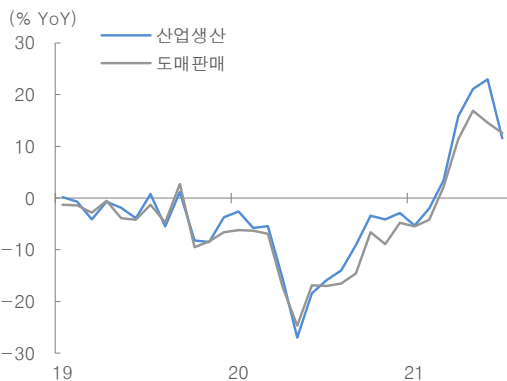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4. 도쿄 올림픽 개최, 코로나 19 확산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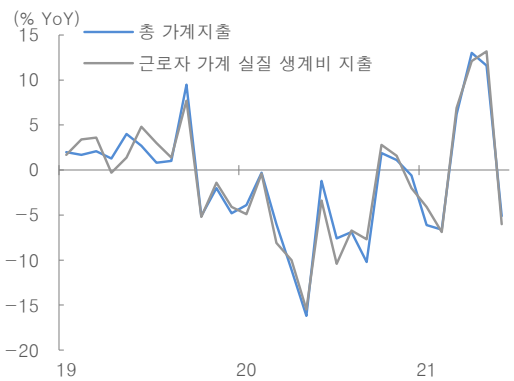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5. 일본 산업생산과 도매판매 추이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6. 일본 총 가계지출 추이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시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작성자: 문남중)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